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분석

이영진¹⁾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사례,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고등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KISS), 창업진흥원, 서울시창업스쿨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약 5000여 개의 기업가정신 관련 문헌 중 13여 개를 추려내었다. 이러한 13개의 문헌 중에서도 분석기준으로 삼은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교육 프로그램 중 고등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수업들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결과는 5건에 불과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으로 재정적 지원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실제 교육은 민간에서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 었다. 이외에 발견한 유의미한 결과로는 ‘정규교육기관에 편성된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대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등이 있었다.

핵심 되는 말 :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1)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전공. E-mail: yj91wer@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더딘 경제성장으로 인한 취업 가능 인구의 감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창업을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Audretsch 와 Thurik(2005)은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리경제(managed economy)에서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가적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현숙(2013)은 과거의 효율주도형 경제 및 관리형 경제와는 달리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과 혁신 및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은 취업 준비나 공무원 준비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추세인 ‘기업가적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전쟁 이후, 많은 기업가들이 발휘한 기업가정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하고,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도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듯 “기업가정신은 현재의 위기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이명숙, 원상봉 2010).

국가 발전, 경제 성장,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창업은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성장 동력인 ‘기업가정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기업가정신 교육별 표준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 영국, 핀란드,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창업 교육을 초등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우진, 2013). 최근 정부에서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다른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 등을 파악해보는 것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개발될 프로그램의 선행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으로 인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창업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이전에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운영방식, 문제점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조사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셋째, 위의 연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를 위한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KISS)를 활용하였다. 2017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RISS 홈페이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키워드로 학위논문 257개, 국내학술지논문 374개를 찾아내었고, 결과 내 검색을 통해 ‘대학생’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학위논문 32개, 국내학술지논문 54개를 추려내었다. 이 중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면밀히 살펴 자료를 수집하였다. KISS 홈페이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키워드로 국내학술지논문 132개를 추가로 찾았고, 결과 내 검색을 통해 ‘대학생’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25개의 논문을 추려냈다.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만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생’,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갖추고 있는 것만을 추려낸 논문들이 가장 1순위로,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2순위로, ‘대학생’, ‘기업가정신’이라는 키워드를 3순위로 설정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논문을 직접적으로 읽고 필요한 내용을 얻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인 2009년 이후의 논문을 주로 다루었고, 연구 범위를 너무 확대하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 출간된 학술지와 학위논문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찾기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edu/edu>)와

서울시창업스쿨(<http://www.school.seoul.kr/index.js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2) 분석 기준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 설정을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교육 프로그램 중 고등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수업들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정규교과에 편성되어있는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지원하는 창업 캠프 속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대학의 창업지원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등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대학생의 범위는 연령이나 대학의 형태(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시켰다.

3) 분석 방법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들 중 분석 기준에 적합한 것들을 추려내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 ‘대학생’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중 1)‘기업가정신’+‘대학생’, 2)‘기업가정신’+‘교육’의 조합으로 검색어를 설정하였고, 기업가정신과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는 ‘창업가정신’의 키워드 또한 사용하여 3)‘창업가정신’+‘대학생’, 4)‘창업가정신’+‘교육’이라는 조합을 만들어 검색을 실시하였다. 1), 3)의 조합에서 나온 결과 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였고, 2), 4)의 조합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교육 프로그램 중 고등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수업들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 기준에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들 분류해내었다. 기준에 적합한 자료들은 자료들 속에서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프로그램의 구성, 교육 목표 등을 추출해내려고 하였다.

문헌조사의 보완을 위해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이나 구성 등 문헌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에서 다루지 않은

프로그램들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둘째, 문헌조사의 특성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고, 단순히 연구된 자료들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친다.

셋째, 국내에 마련된 프로그램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들은 다루지 않는다.

넷째, 방문조사가 아닌 인터넷 조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획득하였고, 게시되지 않은 정보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정신에 관한 고찰

1)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정의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1934)는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피터 드러커(1986)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티몬스(1994)는 “참을성 있고 용감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와 같이 과거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했다.

“Kaufmann과 Dant(1999)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가의 개인적 특질을 강조하는 정의, 기업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 기업가정신의 과정과 결과를 강조하는 정의가 바로 그 것”이다(양준환, 2014) Stevenson과 Jarillo(1990)는 기업가정신을 ‘자원의 통제가능성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Shane과 Venkataraman(2000)은 기업가정신을 “미래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회가 발견되고, 평가되고, 이용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은 Kaufmann의 유형 중 마지막인 과정과 결과를 강조하는 정의의 일종으로서, 기업가정신의 본질이 기회추구의 과정 속에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되는 기회란 “새로운 상품, 서비스, 원재료, 그리고 조직화 방법들이 도입되어 생산원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상황”(Shane and Venkataraman, 2000)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 즉 새로운 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

능성이다. 기업가정신은 가치창출의 가능성과 가치창출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사업기회의 추구, 시장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적 행동, 자원의 효율적 재정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시키는 활동 (Covin and Slevin, 1991; Zahra, 1993; Stevenson and Jarillo, 1990) 등과 같은 기업가정신의 정의 방식은 가치창출이 가능한 기회와 가치창출을 위한 자원의 재정렬을 강조하는 정의”이다.(김범성, 2012)

하지만 비교적 최근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 혁신을 추구하는 것”(Baron & Shane, 2005)으로 정의하며 조금 더 일반화되고 간략한 정의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배종태, 차민석(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키워드로서 행동지향의 사고방식 · 기회에 대한 전착(opportunity obsessed) ·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기·어떤 새로운 가치의 창출 · 창발적 과정(emergent process)·리스크 관리·자원의 부족을 극복·혁신과 창의성 등을 기업가정신의 요소로 꼽고 있다.

위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도출되는 주요한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위험감수 · 자원의 조정 · 기회 추구 · 이윤추구 · 혁신 · 가치창출 · 비효율 제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연구 논문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관들 또한 기업가정신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업가정신을 ‘법적인 모습으로 공식적 부분에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려는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으로 정의내리며 ‘기업경영활동’이라는 다소 좁은 범위로 기업가정신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법적 · 경제적 체계를 지닌 국가들 간에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영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에서 드러나듯 세계은행 본연의 통계적 조사연구 목적의 편의에 입각한 정의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다.(김영수, 성상기, 2015)

OECD는 사업의 주체인 기업가에 관한 정의, 기업가적 활동에 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기업가적 활동에 관한 현상’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주로 선진국의 공식적인 주식회사 창업과 관련한 조사에 집중하는 반면 OECD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점에서 정의가 달라지고, 실제로 두 기관의 기업가정신 관련 통계치나 실증분석상의 불일치도 정의가 다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김영수, 성상기 2015).

<표 1>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 (윤백중, 2012)

연구자	정의
Schumpeter (1936)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활동과 이러한 혁신 실행의 성향
Miller(1983)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자원의 재분배하거나 재결합 하는 행동
Gartner(1985)	새로운 조직의 창출
Hisrich & bruch(1990)	위험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
Zahra(1991)	제품과 공정의 혁신, 시장 개발을 통한 신사업의 창출을 위한 재활동
Kao(1995)	사업기회의 인지, 위험부담의 적절한 관리, 적절한 자원동원의 기준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
Timmons(1994)	사실상 무로부터의 가치 창출을 위한 창조적 능력 및 위험감수인지
Kuratko & Hodgetts(2001)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으로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
민경호(2001)	기업가의 심리적인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에게 필요한 능력 자체
이정호(2005)	조직이 위험추구적, 진취적, 그리고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것
김영수(2006)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혁신활동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를 이끌고 주도하는 것
이상석 & 고인근(2006)	자원의 제약과 위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가의 의지
황인표(2007)	경제, 경영,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과정과 기업경영을 결합시킨 기업가의 활동, 기능, 능력, 정신 등의 모든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
배종태 & 차민석(200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2)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점

이처럼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타나는 것은 연구를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되었는지는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다.(표2)

최근 들어서는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개념 정립 및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숙, 원상봉(2013)은 인적자원개발(HRD)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올바른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표 2.>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 분석 (김종관, 1994)

연구 접근방법	연구 초점	기본 가정	관점
선천성 지향적 연구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관계적 특성	기업가는 독특한 선천성이 없으면 보통 사람과 같다.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선천적 특성
후천성 지향적 연구	개인적 가치체계 창조적 경향 위험감수성향	기업가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후천적 특성
관리 지향적	능력의 향상	연구기업가는 관리의 기술적 기능으로 개 발되고 훈련된다.	기업가정신은 관리하는 행동력
리더십 지향적 연구	동기부여 지휘력	기업가는 혼자서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으며, 타인에 의존한다.	기업가정신은 리더십 발휘능력
적응력 지향적 연구	민첩성	기업가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환경에 대한 인지력과 적응력이 뛰어나다.	기업가정신은 적응하는 행동력
혁신 지향적 연구	혁신성 창조성	기업가는 수익을 위해 소유하는 것보다 창조하고 혁신한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
성장 지향적 연구	성장 프로세스	기업가는 기업의 개발과 성장을 생존으로 인식한다.	기업가정신은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
인적자원개발(HRD) 지향적 연구	인적자원개발	기업가의 긍정적인 기업가적 행동들을 인간의 내재화된 핵심역량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교육·훈련한다.	기업가정신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과정

2.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1) 창업 교육

창업교육이란 “창업을 희망하는 잠재적 혹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에 관련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정신적 상태를 갖추도록 하여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오영미, 2013) 이를 위해 사업 아이디어 탐색,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창업가에 대한 기존의 선천성 지향식 관점이 줄어들고,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란 관점에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onstadt,1985). 아래의 표에서는 창업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두었다.

<표 3>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조병주, 1996)

구분	Ronstadt (1985)	McMullan & Long(1990)	Vesper(1988)	Shapero(1982)
창업에 대한 관점	New School	Growth Venture Position	Start-up Position	Entrepreneurial Event
강조점	체험적 학습방법	전략과 창조성	창업계획	창업발생조건과 개인동기 요인
창업 교육의 범위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	창업 초기 과정과 성장 진입 단계(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 위험부담, 사업경영 능력, 창조성과 혁신 등을 반드시 포함)	창업의 시작단계로 한정(일반적 사업지식, 일반적 창업지식, 창업기회와 관련된 특정지식,	창업기회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관련 특정지식) ·창업발생조건(부정적 선택요인, 과도기적 공백요인, 적극적 유인) ·개인동기(창업욕구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인식) ·창업지식 및 기술

창업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기업가정신이라는 정신적인 상태를 고양할 수 있고, 피고용자 입장에서 고용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권장하는 이유도 이런 것에 있다. 창업교육 수강자 모두가 기업가가 되지는 않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Imel, 1989). 특히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창업이 아닌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사업체 내의 노사갈등 완화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장대성, 2000).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장대성, 2000).

2) 기업가정신 교육

위의 항목에서 다루었던 기업가정신의 정의나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학문 그 자체로서는 성과가 있어도,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었다.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사람 혹은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업가정신에 속하는 역량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영역이고, 이 것이 더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교육 대상이 위에서 정의하였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설된 것은 1938년 일본의 고베대학이다(Mcmillan & Long, 1987). 현재는 미국이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45년 하버드 대학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60년대 중후반부터 다른 학교에까지 점차 보급되어 197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80년대에 와서는 15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가 개설되었는데, 뱀슨 대학에서는 학부 전공 처음으로 기업가정신교육 과목을 개설”하였다(정준이, 권규미, 반성식, 2007). 국내에서 진행되는 기업가정신교육은 대부분이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있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이 외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3)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관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으로 경제/경영 대분류 아래에 ‘SC07 경영전략’ 중분류에 ‘창업/벤처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업가정신’ 용어는 아예 누락되어 있다.(김영수, 성장기, 2015)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념의 구별에 대해 학생과 전문가 모두 인식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혜섭·맹영임·문호영, 2014)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가 (1) 같거나, (2)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교육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거나, (3) 반대로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 교육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거나, (4) 전혀 별개의 관계라는 네 가지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교육이 완전히 같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William Miller 교수가 있다. 그는 ‘entrepreneurship 은 start-up’이라

며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하지만 “‘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며, ‘small business education’은 주로 유럽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는 창업교육, 기존기업 인수, 중소기업경영자 교육 그리고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된다(한문성·권주형·안웅, 2010).

(2)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교육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초과목으로 기업가정신을 가르치지만, 기업가정신교육의 비중을 크게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로 국내학자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외래어인 entrepreneurship이라는 단어를 기업가정신 보다는 ‘창업가정신’ 혹은 ‘창업’으로 번역하고자 하고(홍성호, 2009), “연구 분야를 ‘창업론’이 아닌 ‘창업학(Venturing Entrepreneurship)’으로 명명하여 창업학의 독자성을 강조”한다(박재환·안태욱, 2016).

(3) 기업가정신교육을 창업교육의 상위항목으로 보는 학자들에 따르면, 기업가정신교육은 한 개인이 평생을 살면서 요구되는 역량(competence)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교육대상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이 된다. 또한 창업교육의 궁극적 목적도 기업가정신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정, 학교, 기업,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사업적인 결과물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 기업가정신교육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김영수, 성장기, 2015)

(4)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교육을 별개의 교육으로 보는 견해(배종태, 2014)는 두 개념이 차이가 있음을 주장할 뿐이지 전혀 겹치지 않고 완전하게 무관한 교육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다. 김영수, 성장기(2015)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교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일반 교육과 현장의 창업(준비)자를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한 특화 교육은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4)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창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창업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 학교 등에서 마련한 창업 교육에서는 입문 단계의 교과목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런 공공영역에서의 교육프로그램들은 창업의 성과를 수치를 증명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전체 창업교육 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김영수, 성장기, 2015)

민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무역협회와 같은 민간협회나 금융기관, 사설 학원, 대기업, 창업 컨설팅회사 등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삼고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강의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사례분석, 토론, 팀 프로젝트, CEO 및 전문가 특강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고방식의 창의성이나 혁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김영수, 성장기, 2015) 기업가정신은 지식, 기술, 태도의 세 가지 영역 중 태도의 범주에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주입을 통한 수동적 수용이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까지 전 생애를 걸쳐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있다. 논문의 주된 연구대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초,중,고교생) 대상

조기에 창업에 관한 관심과 기업가정신을 기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은 많이 마련되어있는 실정이다. 허나 위에서 지적했던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교육의 타이틀을 달고, 그 속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강경균, 이운주 2016)

우선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은 다양한 방식과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학교 진로 프로그램(SCEP: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s)과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을 개발하였고,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즈쿨을 운영하고 있다.”(강경균, 이운주, 2016) 이 비즈쿨 프로그램은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2013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수의 학교들이 참여하였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중소기업청 지원정책 예산 1.5조 원 중 60억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아 성공적인 사례로 꼽기는 어려움이 있다.(김영수, 2015)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중등기술창업 교육패키지(STE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특허청에서는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영재 기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뽀뽀 비즈(Fun Fun Biz)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강경균, 이윤주, 2016) 이 것들을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4> 정부 및 기타 공공 기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분석(강경균, 이윤주 2016)

운영기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초	중	고
교육부· 한국직업 능력개발 원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SCEP): Wi-Fi		창업의 과정을 통하여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창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		●	●
	YEEP		청소년 기업가(起業者)체험 프로그램은 동태적이며 급변하는 직업 환경 시대를 맞아 탈산업화 되어가는 사회에 맞춘 진로경로에 대해 학생주도의 창업 체험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함		●	●
미래 창조 과학부	중등기술창업 교육 패키지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경영인으로서의 진로모델을 제시하고, 상상·도전·창업 정신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차세대 과학기술창업인재를 육성함		●	●
중소기업 청 · 창업진흥 원	비즈쿨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함	●	●	●
	청소년 비즈쿨 캠프	새싹기 업 (창업영 재) 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단계부터 기업성장단계의 핵심내용으로 하여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청소년 창업 캠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아이디어창출, 창업지식 등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캠프 (2박3일) 실시	●	●	
		어린이 경제 창업 캠프	어린이(초등4·5·6)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이해 및 건전한 경제관 확립을 위한 창업캠프 (1박2일) 실시	●		

특허청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	잠재력 역량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교육하여 향후 20년전후로 파괴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KAIST IP CEO (IP영재기업인 교육원)	영재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 성장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함.	●	
여성가족부	뽀뽀 비즈	경제개념을 실물경제체험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하고,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경제적 자립준비에 대한 동기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관들의 교육은 대부분 금융이나 경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을 메인 테마로 삼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 성인 학습자 대상

일반적으로 성인 학습자를 지칭할 때는 대학생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은 이번 논문의 주제이자 다른 단락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성인 학습자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성인’으로 한정될 것이고, 학위를 위한 교육이 아닌 것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런 교육들은 주로 초기창업자나 창업예정자들을 학습자로 상정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창업진흥원이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창업넷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기업가정신 강의가 편성”되어 있다.(김영수, 2015)

“미국 카우프만재단(Kauffman Foundation)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설립되어 초기 활동 단계에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여 양적·질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김영수, 성상기 2015)

Ⅲ.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분석 결과

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사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찾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논문 70여 개를 직접 분석하고 그 안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만을 주제로 하는 학술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대학생’ + ‘교육’ + ‘기업가정신’ 세 가지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업가정신’이라는 단일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헌은 약 5,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으나 ‘기업가정신’ + ‘교육’, ‘창업가정신’ + ‘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문헌은 800여 개로 줄어들었고, 기업가정신 교육이 주가 아닌 창업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룬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70여 개 남짓이었다. ‘기업가정신’ 키워드를 포함하는 5,000여 개의 문헌 중 ‘대학생’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자 90여 개의 결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단 13건에 불과했다.

<표 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언급한 논문

논문 제목	주요 내용	비정규 교육과정 여부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도와 기업가정신교육의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의 창업(기업가정신)교육 인식수준과 창업 실현을 위한 인프라 탐구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생의 기업가교육 인식수준 파악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이용하여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동기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확인	
대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이용,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확인	●
상생형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창업가 역량 향상에 관한 연구	‘상생형 현장실습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가 역량에 미치는 영향 탐구	●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생 창업 환경분석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함양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업가정신의 요소 분석과 AL, PBL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
대학의 창업강좌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 : 강사의 특성과 창업효능감을 중심으로	창업강좌와 기업가정신의 상관관계 분석	
대학 창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	●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업 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의 상관관계 분석	
대학의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금전적 지원, 교육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들과 창업의지의 상관관계	
대학의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과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비교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특정 학교들에 소개하고 있는 벤처경영학과, 벤처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창업경영학과, 창업경영대학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등의 학과의 커리큘럼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가정신 수업들은 사례에 포함시키지는 않고자 하였다. 결국 13건 중에서도 학교 정규교육 이외에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만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KISS)를 통해 찾하고자 했던 정보였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서울시창업스쿨 홈페이지에서도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려 시도하였으나,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만이 존재했을 뿐,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시 창업스쿨 홈페이지에는 아예 ‘기업가정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창업가정신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 교육이 창업 교육 과정의 작은 소단원으로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두고 있었다.

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적은 양의 문헌 자료를 토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허나 실제 교육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다들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정규과정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의 지원 아래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은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정규 과정의 일부가 아닌 창업 강좌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 아래의 표는 정부가 '청년 창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대부분 대학 내 정규강좌로 개설된 강의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하이서울 창업스쿨'은 2017년 현재 서울시창업스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기재한 대로 여기서 '기업가 정신'만을 따로 교육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 6>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박선영, 2013)

유형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내용	비고
창업교육	대학창업교육 패키지사업	중소기업청	- 대학 내 창업강좌('09년/94개), 창업동아리('09년 /120개) 지원('11년부터,30개대학패키지지원)	13.5억
	창조캠퍼스	고용노동부	-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40억
	창업대학원 지원	중소기업청	- 창업 예비자 및 창업 전문가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개대학)	12억
	기술 창업 아카데미	중소기업청	- 대학 등을 기술창업아카데미 교육기관으로 지정, 창업교육, 기술평가, 창업컨설팅 등 지원(기관당 50~80백만원지원) 교육	20억
	하이서울 창업스쿨	서울특별시	- 창업교육, 컨설팅 및 자금연계지원 등 (서울소재 예비창업자)	9억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청	- 창업 단계별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창업교육, 예비기술창업자육성, 경진대회등)(15개교)	305.5억

위와 같은 지원 현황을 보았을 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대학이나 대학원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허석재(2009)의 연구에 의하면,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비정규 강좌를 통하여 창업에 대하여 배운 사람의 수가 정규 강좌에서 배운 사람 수 보다 더 많다고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i. 대학에 창업 교육을 담당할 교수 요원의 부족. ii. 대학의 교과 운영 방식의 경직성으로 인한 낮은 교과 반영. iii. 대학의 교육과정 특성상 요식적인 것들이 많음, iv.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체제 이후 1998년부터 중소기업청 중심의 비정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풍부함으로 꼽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래 목적으로 삼았던,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조사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던 문헌들에서 위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허나 문제점으로 ‘금전적 지원 대상 기관과 실제 교육 수행기관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유의미하게 밝혀낸 사실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교나 대학원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규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교육들은 교육과정의 질이나 체계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대한 정보는 문헌상으로 찾아보기도 힘든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들을 발견하였다. 기업가정신이 대학교에 정규 수업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은 시점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였고, 외환위기 이후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특별법 및 코스닥 시장의 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벤처기업 창업 열풍이 불게 되었고 자연스레 그 분위기가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이 때부터 각 학교별로 ‘창업’과 관련된 수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하였

다. 당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초, 국내 벤처기업 32.4%가 2~30대가 CEO로 있는 ‘젊은 기업’이었다. 그 때에 비해 현재 ‘창업’,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정규과정은 더욱 많이 생겨났지만 현재 20~30대 CEO 비율은 10%로, 대학생 창업의 경우에는 0.2%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보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강화되었음에도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되는 비중은 적었다는 것이다. 특히 압도적 다수의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준비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대학 단계에서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세 번째로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타겟이 대부분 청소년 층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조사했던 많은 문헌들이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여기서 다루는 청소년들은 19세에서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을 제외한 중등교육 과정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규교육 단계에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도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다. 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충분히 외부기관과 정규교육기관인 학교 양측 모두에서 기업가정신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 대학 진학 후에는 정규교육기관을 통해서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제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가 아닌, 현장방문·인터뷰·체험 등의 질적 연구와 학습자·강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등과 같은 양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규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정말 창업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연구들은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등단계와 그 이후의 교육들 간의 유기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기업가정신이 교육으로 인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생애 발달 단계에 맞춘 유기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중요하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규교육기관과 외부기관을 통해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던 학생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대학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수업을 듣게 되거나, 혹은 창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소, 창업 컨설팅 회사가 마련한 창업 프로그램 내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이 정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교육과 행동의 괴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교육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음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 강경균, 이윤주. (2016).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II.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46.
- 강인애, 김양수, 윤혜진. (2017).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 대학교 사례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7), 253-264.
- 김범성. (2012). 연구논문 : 경제,경영 영역;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119-152.
- 김영수, 정상기. (2015). 기업가정신교육의 교과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 HAKS모형에 기반한 모듈식 교육방안. **산업교육연구**, 29(5), 1-30.
- 김종관. (1994).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연구접근방법. **대한경영학회지**, (9), 27-52.
- 목영두. (2011)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오. (2014). 대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3(5), 233-247.
- 박선영. (2013).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환, 안태욱. (2016).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1), 39-47.
- 배종태, 차민석. 2009. 학술연구 :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 109-128
- 슈페터(2005). 경제발전의 이론. 서울: 박영률.
- 양준환. (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6), 65-77.
- 양준환. (2015).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4), 2564-2572.
- 윤백중. (201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영미. (2013).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55.
- 이명숙, 원상봉. (2013).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창업자, 예비창업자, 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2(2), 99-134.
- 이신정, 이은혜, 이영민. (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함양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3-204.

- 이유태, 정대성, 오윤석. (2016). 상생형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창업가 역량 향상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1), 121-130.
- 이우진. (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과 직업선택의 동기가 학생들의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훈. (2013).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63-74.
- 이현숙. (2013).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 (191), 22-33.
- 장대성. (2000). 경영 및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12, 63-82.
- 정준이, 권규미, 반성식. (2007).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대한경영학회지**, 20(4), 1797-1820.
- 조병주. 1996. 창업교육의 교과내용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 **중소기업연구**, 18(2), 157-184
- 조훈. (2016). 대학생의 창업(기업가정신)교육 인식수준과 창업 실현을 위한 인프라 탐구.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47-161.
- 한문성, 권주형, 안웅. (2010).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의 현황 및 교육수요자의 기대 성과에 대한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상업교육연구**, 24(4), 143-170.
- 피터 드러커 (2004).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한국경제신문.
- 허석재. (2009).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경험과 요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Timmons, J. A. (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4th ed.). Burr Ridge, Illinois : Irwin
- André van Stel, Martin A. Carree, A. Roy Thurik. (2005).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y on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311-321

Abstract

Analysis 'Instructional program of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tudent'

Young-Ji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Instructional program of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tudent''s present condition, case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 'Instructional program of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tudent' means programs excep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The source of data was from RISS, KISS, KISED(Korea Institute of Start 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Start-Up school of Seoul. With these source, I can get 5 theses. Problems of 'Instructional program of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tudent' is a gap between well-funded institute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s and practical institutes that many people chose. Meaningful results through this study are 'Entrepreneurship educations are weighted to Universtiy educatio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have some invalid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youth are brisk'.

Key words : *Entrepreneurship, Instructional Program*